

설명자료
2009.02.23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2009.2

보 험 연 구 원

<목 차>

I. 수정전망의 배경	1
II. 실물경제 · 금융 환경	3
1. 세계경제 환경	3
2. 국내 실물경제	5
3. 금융시장 환경	9
III.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12
1. 주요지표	12
2. 생명보험	14
3. 손해보험	21
4.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30
IV. 주요 대응과제	33
1. 거시경제의 변화와 보험산업	33
2.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34

I. 수정전망의 배경

- 최근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침체가 상승작용을 하는 악순환에 의한 장기불황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미국, 유로 등 주요 선진국의 구제금융 지원, 각국의 유동성 공급 및 금리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시장의 불안, 금융기관의 추가적 부실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 세계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후 최악의 불황과 이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지배적
- IMF, 민간기관 등 주요전망기관들은 최근 경제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고, 특히,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08년 7월 이후 3번(10월, 11월, 2009년 1월)에 걸쳐서 3.4%p나 하향조정할 정도로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추세
-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침체 가속,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빠르게 하강하고 있음.
-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 금융시장 불안, 신용경색 지속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내수 감소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국내경제도 빠르게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지난 2008년 11월에 발표한 『2009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
- 이에 본고에서는 대내외적 경제·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보험산업 관련 주요지표를 전망하고, 보험 관련 기관들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대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주요 국내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을 실시
- 다음으로 보험시장의 최근동향 분석과 경제·금융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시장에 대한 전망을 수행
- 경제·금융 및 보험시장 전망을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평가
- 상기 동향분석, 전망 및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

Ⅱ. 실물경제 · 금융 환경

1. 세계경제 환경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예상보다 빠르게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급속한 하방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 유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지난해 4/4분기 중 감소세를 시현하였고,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도 크게 둔화

<표 1> 최근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

(단위 :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미 국	1.3	1.8	2.8	2.3	2.0	2.5	2.1	0.7	-0.2	1.3
유 로	3.2	2.6	2.7	2.1	2.6	2.1	1.5	0.6	-0.3	1.0
일 본	3.2	2.2	2.1	2.0	2.4	1.5	0.7	-0.2	-4.6	-0.7
중 국	11.7	12.6	12.0	11.3	11.9	10.6	10.1	9.0	6.8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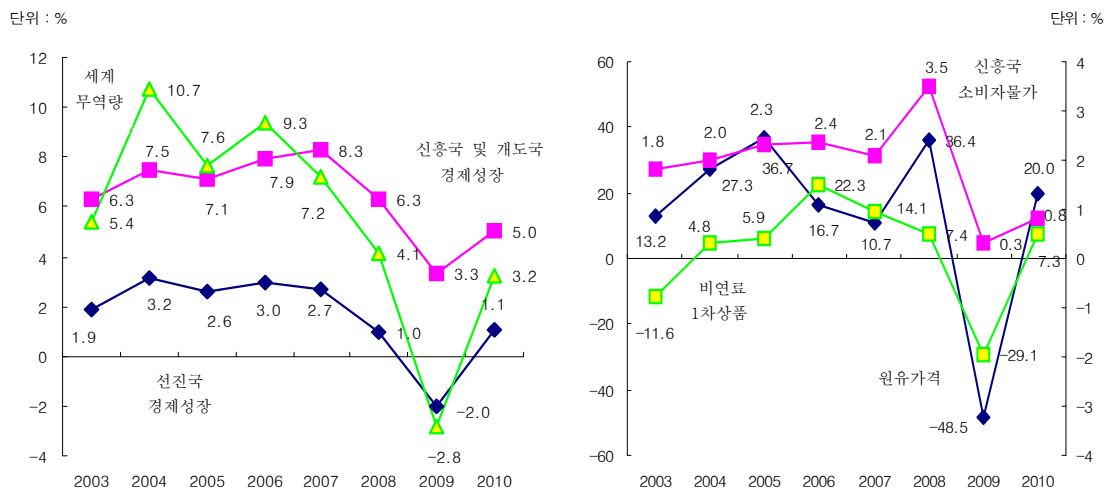
주: 유로의 2008년 4/4분기는 IMF의 연간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일본내각부,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중국국가통계원

□ 향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악화와 신흥개도국의 성장 동력 저하라는 동시적 불황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침체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 IMF는 2009년에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은 감속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며, 그 동안 고성장을 계속해 온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은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전반적인 세계경기의 침체,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실처리 등에 의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내수가 감소하면서 세계무역도 크게 위축되고, 원유, 기타 원자재 등의 가격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전망

<그림 1> 세계경제의 성장, 무역 및 물가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8,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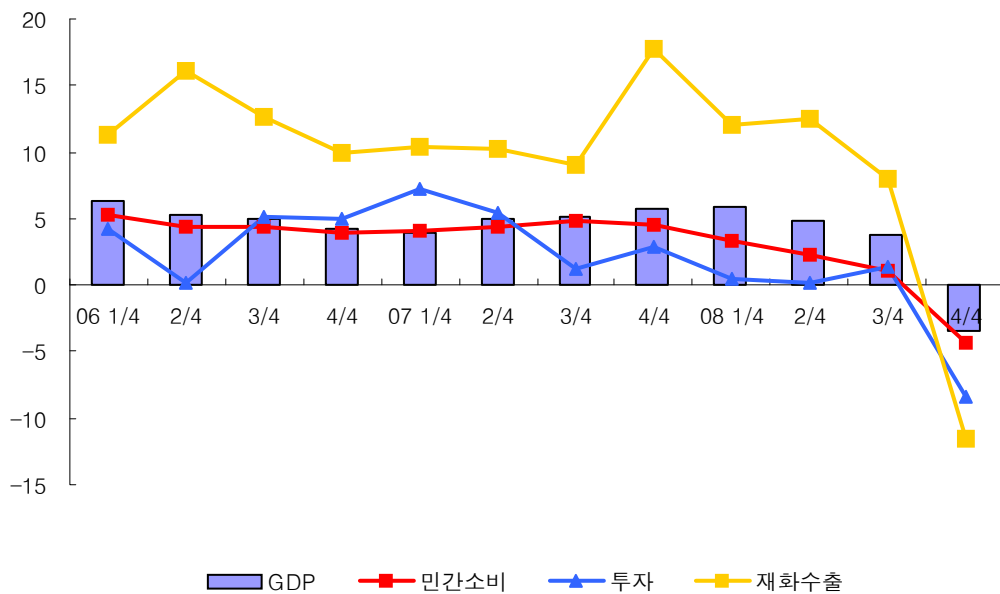
-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이 계획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은 2010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
- 각국의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은 실제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국제적 정책공조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2. 국내 실물경제

- 세계경제의 침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경제도 수출과 내수가 동반 급락하고 있음.
- 세계 실물경제의 급속한 하강으로 2008년 3/4분기까지 국내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재화수출이 4/4분기에 -11.5%로 급감
- 국내외적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대폭적인 감소세로 급반전
- 이러한 수출과 내수의 동반 하락으로 4/4분기 중 실질GDP 성장률이 -3.4%를 기록하면서 2008년 연평균 2.5%로 2007년 5.0%의 절반수준에 그침.

<그림 2>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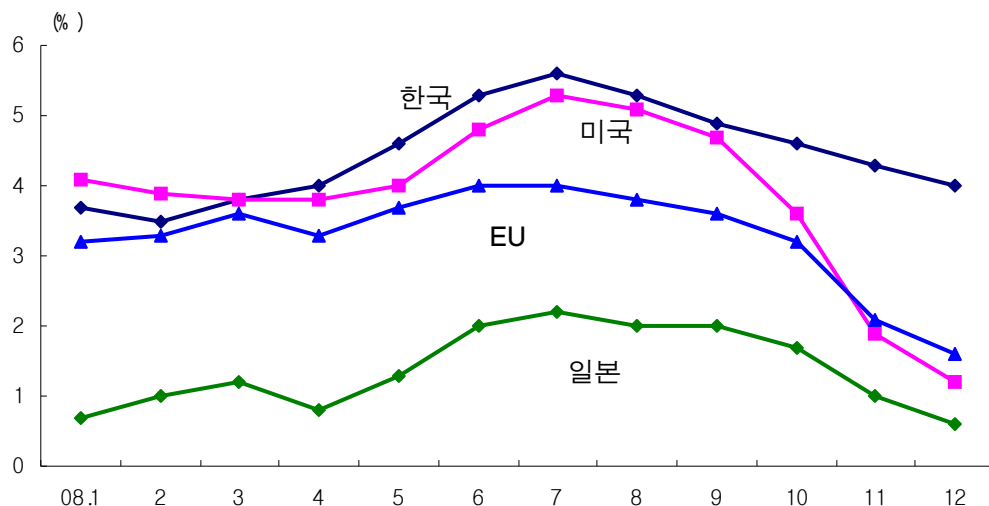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09년 국내경제는 금융과 실물경제간 악순환 가능성,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극심한 침체국면을 직면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6%로 급강하할 전망이다.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은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실물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민간소비는 작년 0.5% 증가에서 금년에는 -4.3%로 감소할 전망
- 설비투자도 대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11.7%의 대폭적인 감소 예상
-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나, 정부의 SOC투자에 대한 재정지출 효과로 인하여 하반기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연간 -0.6%의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
-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의 가속과 여기에 내수부진이 가세되어 수입 감소율이 수출 감소율을 상회할 전망
- 경기침체의 가속과 더불어 부실부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 상승, 고용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09년 1월 중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0.3만명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0.3%p 상승, 고용률은 1.0%p 하락
- 향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실업률의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져 2008년 3.2%에서 금년에는 3.8%로 0.6%p 높아지며, 고용률은 같은 기간 중 59.5%에서 57.8%로 1.7%p 낮아질 전망

- 한편, 국내물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총수요 감소,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에 힘입어 2%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 작년 상반기 중 상승세를 보이던 주요국의 물가가 하반기 들어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힘입어 상승률이 현저하게 둔화
-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총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공급측면의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림 3> 주요국 물가 변동 추이



- 금년도 대외거래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크게 감소하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세계경제의 침체 가속으로 대외무역량과 수출입 단가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금액기준의 상품수출은 19.5%, 상품수입은 22.0%가 감소할 전망
- 특히, 상품수입은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수출에 비해 단가하락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2008년 60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157억 달러로 흑자폭이 확대되며, 경상수지는 64억달러 적자에서 122억 달러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표 2>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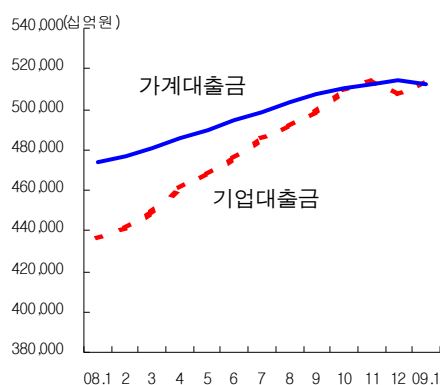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F)		
					상반	하반	연간
실질GDP	4.2	5.1	5.0	2.5	-5.2	0.0	-2.6
(명목GDP)	4.0	4.6	6.3	5.3	-3.3	2.5	-0.3
민간소비	3.6	4.5	4.5	0.5	-7.2	-1.3	-4.3
건설투자	-0.2	-0.1	1.2	-2.7	-5.1	3.1	-0.6
설비투자	5.7	7.8	7.6	-2.0	-17.3	-5.7	-11.7
재화수출	9.7	12.4	12.0	4.6	-13.1	-4.2	-8.7
재화수입	6.4	11.2	10.9	3.9	-13.2	-4.4	-8.9
실업률	3.7	3.5	3.2	3.2	4.0	3.7	3.8
(고용율)	(59.7)	(59.7)	(59.8)	(59.5)	(57.6)	(58.0)	(57.8)
소비자물가	2.8	2.3	2.5	4.6	2.7	2.2	2.4
경상수지(억달러)	149.8	53.9	58.8	-64.1	59.4	62.8	122.2
상품수지(억달러)	326.8	279.1	281.7	59.9	77.5	79.8	157.3
상품수출(억달러)	2,889.7	3,318.4	3,790.5	4,334.3	1,652.8	1,836.9	3,489.7
(%)	(12.1)	(14.8)	(14.2)	(14.3)	(-25.3)	(-13.5)	(-19.5)
상품수입(억달러)	2,562.9	3,039.4	3,508.8	4,274.3	1,575.3	1,757.1	3,332.4
(%)	(16.4)	(18.6)	(15.4)	(21.8)	(-27.3)	(-16.6)	(-22.0)

주: 2009(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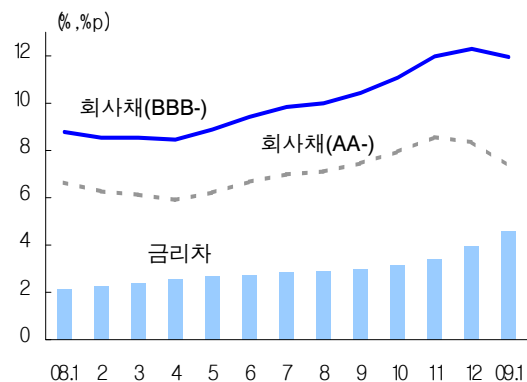
3. 금융시장 환경

- 국내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정책금리의 인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유동성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작년 10월 초 5.0%에서 5차례에 걸친 인하를 통해 현재 2.0%까지 하락
-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가계 대출금이 담보상태에 있어 은행권에서 실물부문으로 원활한 자금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대기업 위주의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AA-)와 중소기업 위주의 비우량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BBB-) 간의 금리차가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

<그림 4> 기업/가계 대출금 변동 추이 <그림 5> 회사채 금리 변동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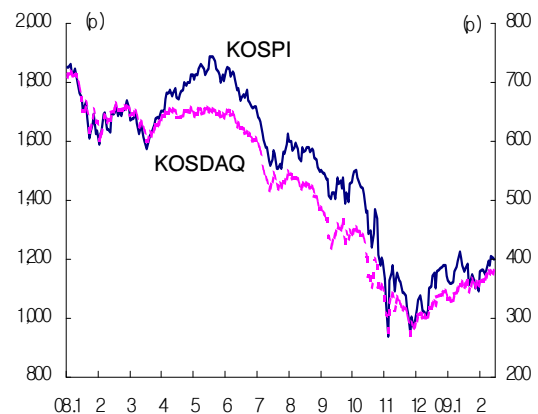
- 또한 지난해 말 정책당국의 적극적 대응과 국제 공조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주식시장 등은 글로벌 시장의 동조 현상을 지속하면서 약세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작년 9월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투자한 자금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자금회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약세 기조 하에서 변동
- 국내 주가는 작년의 주가 폭락이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현상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금년 초 박스권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경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

<그림 6> 원/달러, 원/엔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7> 국내 주가지수 변동 추이



자료: 증권거래소(KRX)

- 향후 신용경색의 해소, 경기 호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예금금리에는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대출금리에는 수익성의 고려로 인해 시차가 발생하므로 시장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반응

- 이에 회사채와 국고채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08년 7.0%와 5.3%에서 2009년에는 4.9%와 2.7%로 낮아지면서 양자의 스프레드도 좁혀질 전망

□ 한편, 원/달러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수출 급감 등으로 당분간 급격한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동구권 금융위기의 심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일부 기업들의 도산 전망, 수출 급감에 따른 달러화 공급 부족 등으로 2009년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그러나 금년 들어 2월 초까지 외국인 주식 순매수액이 1조3,500억원에 이르며, 외화차입금 만기연장도 하루짜리 초단기물에서 한 두달짜리로 길어지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여 상반기 대비 절상될 것으로 예상

- 반면, 엔/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지속,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달러 약세화 가능성 등으로 2009년에도 강세기조를 유지할 전망

<표 3> 국내 금리 환율 전망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F)		
					상반기	하반기	연간
회사채(AA-)	4.7	5.2	5.7	7.0	5.7	4.1	4.9
국고채(3년)	4.3	4.8	5.2	5.3	2.9	2.5	2.7
원/달러(평균)	1,024.2	955.3	929.2	1,099.5	1,317.4	1,156.5	1,236.9
엔/달러(평균)	110.1	116.3	117.8	103.4	90.0	88.9	89.4

주: 2009(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ECOS

Ⅲ.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1. 주요지표

-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지난 3년 연속 두 자리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FY2008부터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대폭 둔화될 전망이다(FY08 1.3% → FY09 3.7%).
- 생명보험의 경우 FY2008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주식시장 및 실물경제 침체로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신계약이 대폭 감소하고 해약률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FY08 -2.5% → FY09 1.3%).
- 손해보험은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장기손해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하겠으나, 자동차보험은 요율 인하와 신차등록대수 감소, 온라인 채널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의한 가격 경쟁 심화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FY08 9.6% → FY09 8.3%).

<표 4>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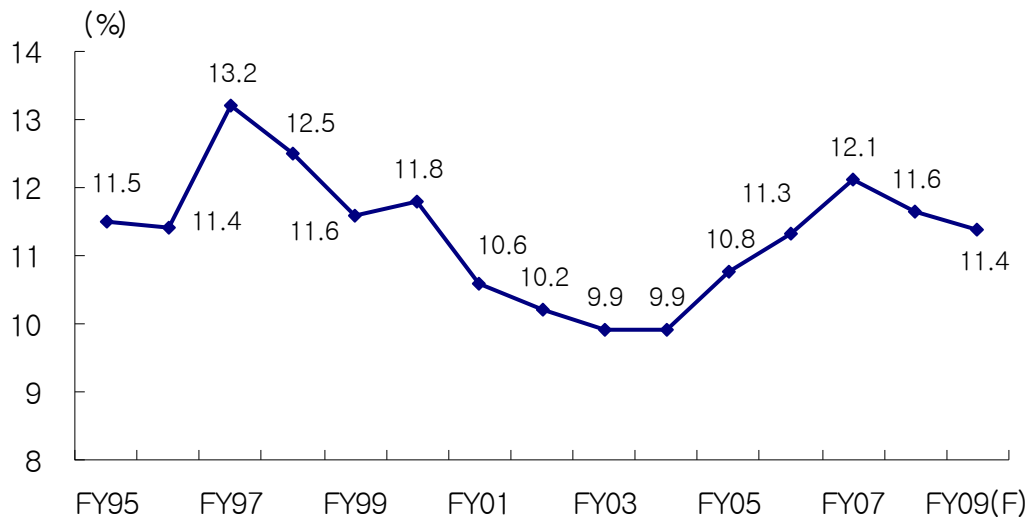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생명보험	61.5 (14.4)	66.5 (8.1)	75.1 (13.0)	73.2 (-2.5)	74.2 (1.3)
손해보험	25.7 (10.8)	29.6 (15.0)	34.0 (14.9)	37.3 (9.6)	40.4 (8.3)
전 체	87.2 (13.3)	96.0 (10.1)	109.1 (13.6)	110.4 (1.3)	114.5 (3.7)

주: ()안은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이며,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는 FY2008부터 수입보험료 상승이 경상GDP 성장률을 하회할 것이어서 11.6%, 11.4%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8> 보험침투도 추이



-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 성장 둔화와 투자 여건 악화로 FY2009년에 전년대비 6.9% 증가한 426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표 5>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생명보험	239.4 (13.1)	273.1 (14.1)	305.4 (11.8)	325.4 (6.5)	345.7 (6.2)
손해보험	49.3 (13.6)	57.0 (15.6)	66.0 (15.9)	73.3 (11.1)	80.6 (10.0)
전 체	288.7 (13.2)	330.1 (14.4)	371.4 (12.5)	398.7 (7.4)	426.3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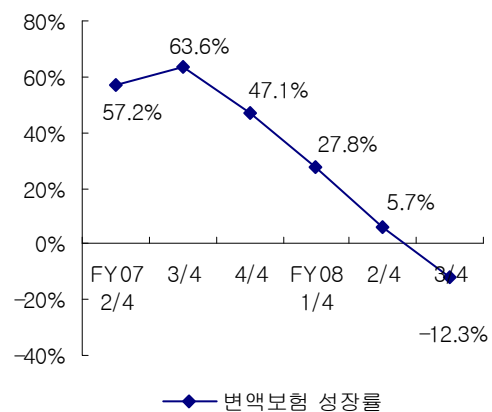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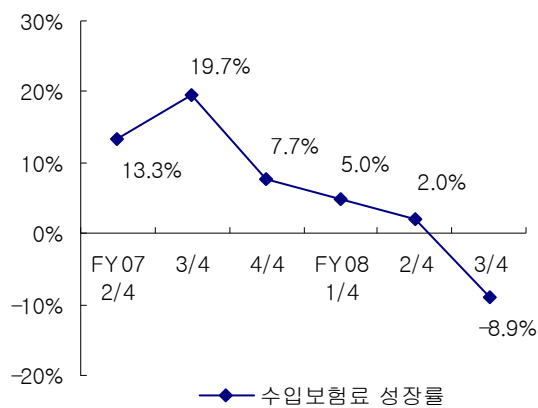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생명보험

1)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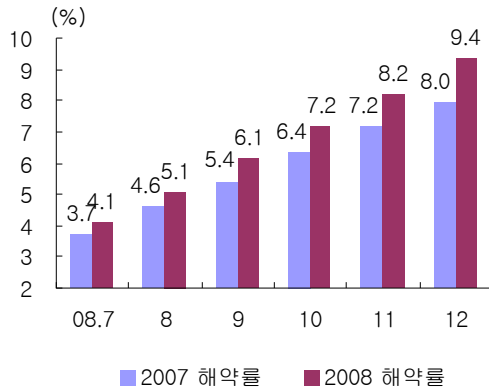
- FY2008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종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변액보험에서의 성장 둔화가 가파르게 나타남.

<그림 9> 수입보험료 성장률 <그림 10>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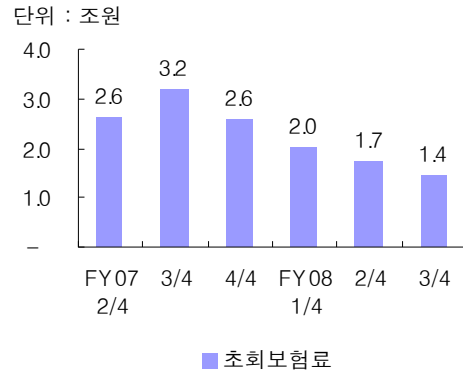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크게 증가했던 일시납 수입보험료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2.3% 감소
- 일반계정 개인보험 또한 신규 보험가입 감소와 해약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악화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3/4분기(12월)에 대부분 거수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
- 생명보험 전체 해약률은 전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월 이후 증가율이 상승하는 추세

<그림 11> 생명보험 해약률 추이



<그림 12> 초회보험료 추이



주: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 금융시장의 불안, 실물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향후 생명보험 산업은 저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FY2008은 경기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FY2009년에도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1.3%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이는 FY2008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본격적인 성장세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

□ 개인보험은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한 수요둔화와 해약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FY2009년 1.4%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의 구조적 저성장세와 질병보험 판매의 지속적 축소 등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으며 특히 최근 사망보험의 주 성장요인이었던 유지율 제고효과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FY2009 0%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종신보험 초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계속 보험료 성장률마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흐름은 FY2009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질병보험이 주를 이루는 기타 사망보험의 경우 언더라이팅 강화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FY2009 생존보험은 일시납을 중심으로 한 변액연금 신규가입의 급격한 감소와 일반계정 연금의 성장 둔화로 인해 2.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변액연금의 경우 주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된 후에 성장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FY2007 고성장을 나타냈던 변액연금 신규가입의 대부분이 일시납에 의한 것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주식형 펀드 붐에 편승한 일시적인 수요가 존재했음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이 회복되더라도 FY2007과 같은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향후 보험업법의 시행에 의해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강화되면서 변액보험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계정 연금의 신규 가입은 최근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손해보험 개인연금 가입이 큰 폭 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됨.
- FY2009에도 고령화에 따른 일반계정 연금수요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타업권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고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FY2009 생사혼합보험은 변액유니버설 보험의 저성장세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일반생사혼합보험의 지속적인 수요감소로 인해 2.3%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변액연금보험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납보험의 비중이 변액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

에 성장률 하락폭 또한 작을 것으로 보임.

- 일반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의 경쟁력 상실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FY2009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 위축될 전망
- FY2009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기업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부정적 요인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0%대의 저성장이 예상됨.
- 일반단체 보험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신규가입이 중단된 퇴직보험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의 경우 정책당국의 활성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거나 개별기업의 실적악화로 인해 적극적인 신규가입은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

<표 6> FY2009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7		FY2008(E)		FY200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보험	679,058	13.4	673,222	-0.9	682,447	1.4
- 생존	223,900	24.0	219,102	-2.1	224,526	2.5
- 사망	306,812	4.3	305,084	-0.6	305,388	0.1
- 생사혼합	148,345	19.4	149,035	0.5	152,533	2.3
단체보험	71,898	9.7	59,134	-17.8	59,351	0.4
- 일반단체	11,712	-5.4	10,557	-9.9	9,615	-8.9
- 퇴직보험	49,606	0.3	36,666	-26.1	34,795	-5.1
- 퇴직연금	10,580	186.0	11,910	12.6	14,941	25.4
합 계	750,956	13.0	732,357	-2.5	741,799	1.3

주 : 변액보험은 종목별로 개인보험에 포함되었음.

변액보험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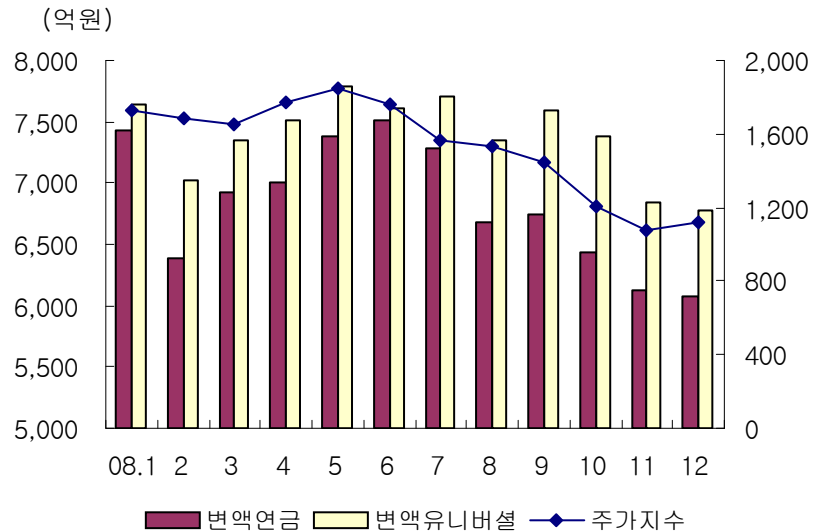
- 지난 몇 년간 생명보험 산업의 고성장을 이끈 주요인이었던 변액보험은 최근 금융시장의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 성장률이 추락하였고 FY2008 3/4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특히 신규가입규모는 전년에 비해 9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주로 일시납보험의 급속한 위축에 기인함.

FY2008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및 수입보험료 비중

종 목	변액보험 초회비중			종 목	개인보험 내 변액보험비중		
	1/4	2/4	3/4		1/4	2/4	3/4
변액종신	4.7%	2.5%	1.5%	사망보험	3.4%	3.4%	3.4%
변액 유니버설	12.7%	6.7%	2.9%	생사혼합	60.0%	59.0%	57.0%
변액연금	29.8%	18.5%	6.9%	생존보험	38.9%	37.0%	34.7%
합 계	20.2%	11.8%	4.6%	합계	27.6%	26.8%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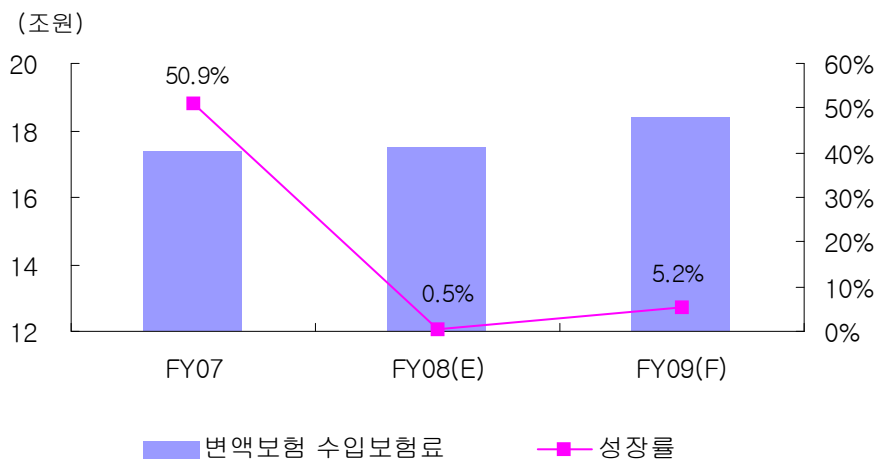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추가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회복시기가 언제인지가 FY2009 변액보험 성장세 회복에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업법 시행 등 외부적 요인도 변액보험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연구원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FY2009 실물경제는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FY2009 하반기부터는 금융시장 또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급속히 회복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변액보험 판매 절차가 까다로워져 변액보험 판매가 위축될 수 있음.
 - 또한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FY2009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과 FY2008의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5%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변액보험이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 변액보험 성장률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2)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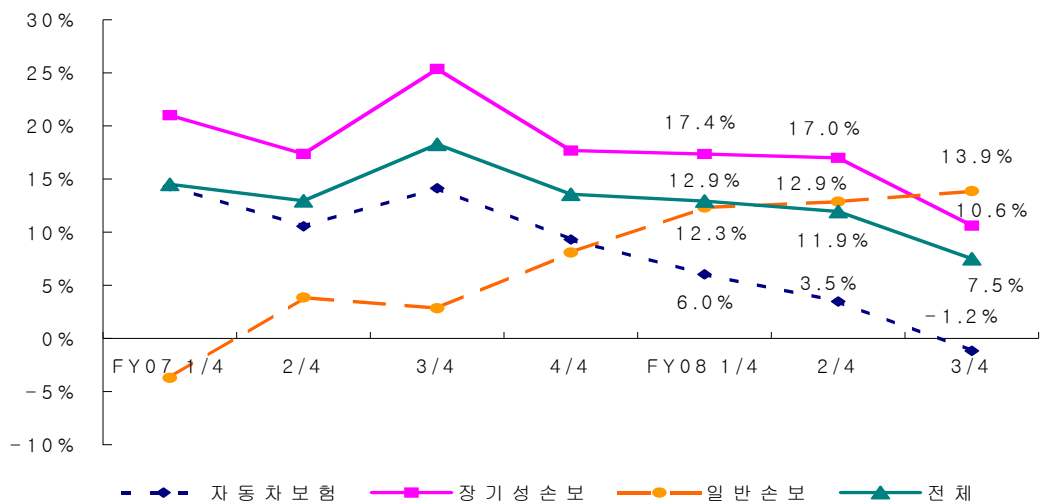
- FY2008 3/4분기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서 18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지급보험금 증가에 의해 보험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영업수지는 적자를 기록
 - 투자영업수지의 경우 환율 상승에 의해 국내사를 중심으로 통화파생상품 손실이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익 증가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투자영업수지는 소폭 감소
- FY2009 경영수지는 해약 등에 의한 보험영업수지 적자지속과 채권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영업이익 축소 등으로 인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은 신규가입 급감과 해약증가로 감소세가 불가피하며 해약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보험영업비용 증가가 야기되면서 보험영업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08년 하반기 신용경색으로 상승했던 채권금리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9년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영업이익은 악화될 전망
 - 투자영업비용은 2008년 하반기 환율 급등과 함께 통화관련 파생상품손실이 대폭 늘어나면서 악화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점차 안정되면서 투자영업비용도 개선될 전망

3. 손해보험

1) 원수보험료

- FY2008 4~12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13>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주: 장기성손보는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연금)을 포함하며, 일반손보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보험을 포함.

- 그러나 FY2008 3/4분기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장기성 손해보험의 성장세도 다소 둔화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요율 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한 신차등록대수 감소, 가격 경쟁이 심한 온라인채널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FY2008 들어 성장률이 급감

- 자동차 원수보험료 성장률 : FY07 4~12월(13.0%) → FY08 4~12월(2.7%)

- 장기성 손해보험 중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기업성보험인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전체 장기성 손해보험의 성장률이 둔화
- 일반손해보험은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로 화재보험과 기술·책임·종합보험 등 기업성 특종보험의 성장률이 부진하였으나, 보증보험과 해상보험,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7> 손해보험 분기별 성장률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1/4	2/4	3/4	4/4	1/4	2/4	3/4	누계
화재보험	-1.8	-5.2	-2.6	2.3	-5.7	-6.9	-9.8	-7.6
해상보험	-17.4	11.2	13.9	15.2	24.9	7.2	72.6	32.7
자동차보험	14.3	10.6	14.1	9.3	6.0	3.5	-1.2	2.7
보증보험	-18.4	-12.2	-15.3	-5.3	16.1	25.1	8.4	16.2
특종보험	7.5	9.7	9.3	13.3	9.7	12.1	7.1	9.6
장기보험	22.4	19.5	19.6	16.8	16.1	16.3	14.4	15.6
개인연금	23.4	26.8	24.0	27.0	28.3	30.0	29.1	29.2
퇴직보험	-31.7	52.4	48.6	-8.1	-32.4	-19.7	-21.1	-22.2
퇴직연금	971.8	-79.3	758.8	308.1	495.5	81.6	-1.5	49.2
전 체	14.5	12.9	18.3	13.6	12.9	11.9	7.5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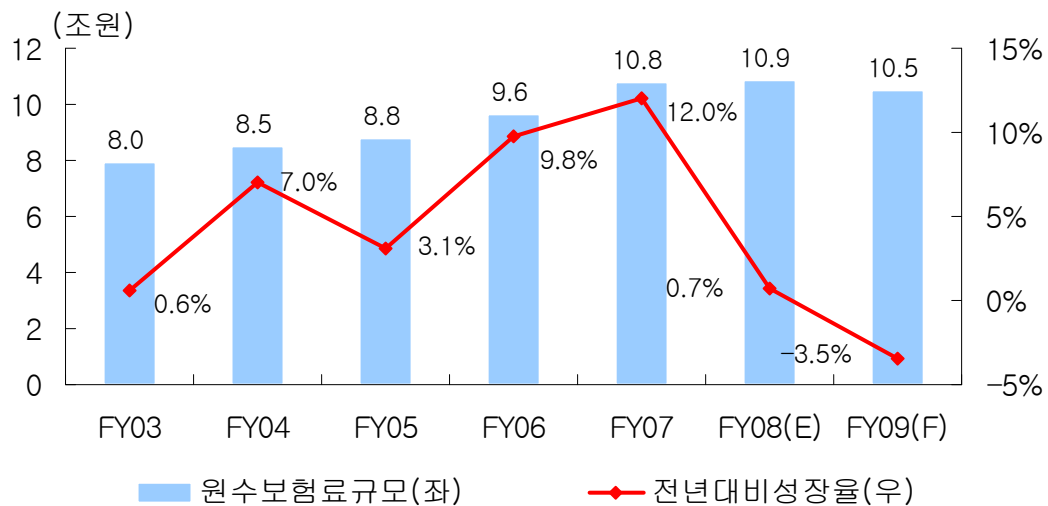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은 FY2008 전년대비 0.7% 성장하여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FY2009 -3.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침체로 자동차 등록대수 및 고급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채널의 비중 확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온라인 채널의 비중 (FY07 18.1% → FY08 4~1월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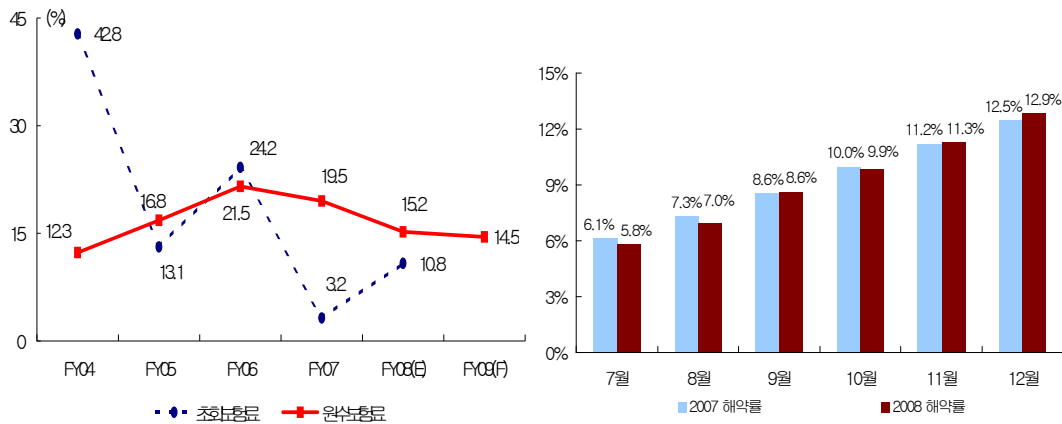
- FY2008 중반 고유가로 인한 운행거리 단축과 사고율 감소로 보험료가 인하되었고 할인대상 차량이 증가하였다는 점도 자동차보험 역성장의 주 원인으로 작용
- 최근 손해율 상승 추세가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보험 성장률은 다소 회복될 수는 있겠으나 그 영향은 FY2009보다는 FY2010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그림 14> 자동차보험 성장률 추이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통합형 보험의 높은 성장세와 저축성 보험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FY2008 14.0%, FY2009 1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초회보험료가 FY2008 4~12월에 FY2006 이후 최대 폭인 전년동기 대비 10.8% 성장하여 성장잠재력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장기손해보험은 당분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장기보험 해약률은 FY2008 4~12월에 12.9%로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에 그쳤으나 11월 이후 해약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경기침체로 생계형 해약이 증가할 전망

<그림 15> 장기손해보험 보험료성장률과 해약률 추이



주: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 장기손해보험 성장률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 보장 수요 증대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고성장할 전망(FY08 18.8%, 14.3% → FY09 26.3%, 27.4%)
 - 상해 및 질병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6.8%, 89.0% 성장하여 향후 장기보험의 성장세를 주도
- 지난해 장기보험의 성장세를 이끌던 통합형 보험은 FY2008에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손해율 상승 등으로 판매활동 위축이 지속되어 초회보험료가 FY2008 4~12월 -21.0% 역성장함으로써 FY2009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FY08 21.5% → FY09 10.5%)
- 저축성 보험의 경우 주가지수 연계형 상품 등 신상품의 개발로 계속보험료와 초회보험료가 모두 상승하고 있으나, 해약률이 증가 중이며 자산운용환경의 악화로 공시이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전망(FY08 9.5% → FY09 7.1%)
- 기타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은 계속보험료와 초회보험료가 모두 역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성장률도 위축될 전망(FY08 -1.9%, 3.3% → FY09 -5.73%, 2.8%)

<표 8> 장기손해보험 세부 종목별 성장률 및 해약률 추이

(단위 : %)

구분	원수보험료 성장률		초회보험료 성장률		해약률	
	FY2007	FY2008 4~12월	FY2007	FY2008 4~12월	FY2007 4~12월	FY2008 4~12월
상해보험	24.8	24.4	20.7	26.8	13.7	12.9
운전자보험	2.9	-0.8	0.7	-28.1	11.3	13.1
재물보험	3.8	3.4	13.6	-1.2	10.3	11.9
질병보험	10.3	19.7	52.3	89.0	12.7	11.5
저축성보험	21.9	10.2	-7.1	2.5	12.9	15.0
통합형보험	50.0	24.4	-16.3	-21.0	8.8	8.0
장기보험 계	19.5	15.6	3.2	10.8	12.5	12.9

-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의 지속적인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상, 특종, 보증보험의 높은 성장세로 인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FY2008 4/4분기 이후 성장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FY08 10.7% → FY09 7.3%)
- 화재보험은 일반물건의 보험료 인하,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등 부정적 영향에 따라 역성장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FY08 -9.0% → FY09 -7.9%)
- 해상보험은 조선건조량 및 고가선박 증가 추세, 환율상승에 따른 보험료 환차익 등으로 FY2008년에는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나 FY2009에는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와 함께 선박 및 항공기의 항로 통합과 계선 증가 등 수요 감소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FY08 31.3% → FY09 5.4%)
- 특종보험은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로 기술보험과 종합보험 등 기업성 보험이 부진을 보이는 반면, 상해보험 등 가계성 보험의 고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FY08 6.9% → FY09 7.3%).

- 상해보험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건강, 질병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FY08 14.9% → FY09 11.7%)
 - 기술보험과 종합보험은 건설 및 민간투자 위축세 지속과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인해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FY08 -17.8%, 0.6% → FY09 -3.6%, 0.4%)
 - 책임보험은 실화책임법 적용중지 선고에 따른 배상책임 보상범위 확대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증대로 시장은 확장되겠지만 건설공제 등 유사보험의 역할 확대로 성장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FY08 4.9% → FY09 8.1%)
 - 기타특종보험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으로 분양손실보험(CI) 및 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AVI)의 손실로 성장 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FY08 36.6% → FY09 14.2%).
- 보증보험은 금융위기로 인한 제1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FY2008 상반기 보증물량 자체는 늘어났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불량물건의 증대로 인수심사를 강화하여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FY2009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FY08 13.9% → FY09 12.7%).
- 개인연금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FY2009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FY08 27.7% → FY09 27.2%).
- 퇴직관련 보험시장은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퇴직연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으나 퇴직보험 해약액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FY08 -7.5% → FY09 -0.4%).
- 퇴직보험제도가 201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약이 증가하여 퇴직보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FY08 -22.3% → FY09 -26.27%)

-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49.2%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내부유보 손비인정비율이 30%로 축소되는 등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조치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됨(FY08 49.8% → FY09 52.3%).

<표 9>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E)		FY2009(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화 재	3,075	-1.8	2,797	-9.0	2,576	-7.9
해 상	6,518	3.1	8,560	31.3	9,024	5.4
자동차	108,095	12.0	108,851	0.7	105,041	-3.5
보 증	9,940	-13.0	11,321	13.9	12,759	12.7
특 종	28,371	9.0	30,385	6.9	32,546	7.3
장 기	163,436	19.5	188,225	15.2	215,595	14.5
개 인	9,995	25.3	12,869	28.8	16,369	27.2
퇴직보험	8,258	26.2	6,414	-22.3	4,701	-26.7
퇴직연금	2,133	61.0	3,195	49.8	4,866	52.3
합 계	339,818	14.9	372,567	9.6	403,478	8.3

주: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2) 수익성

① 손해율 및 사업비율

- FY2008 4~12월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75.5%로 전년 대비 0.2% 개선되었으나 향후 손해율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FY08 75.8% → FY09 77.8%).

- 2008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환율상승으로 해외여행수요가 국내여행수요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운행거리가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11월 이후 72~73%대로 상승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의 손해율도 경기침체로 인한 불량물건 증가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

-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비 증가로 전년대비 0.5%p 증가한 24.0%로 상승하였으며 향후에도 장기손해보험 신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약률도 상승할 것이 예상되므로 24%대의 사업비율이 계속 유지될 전망(FY08 24.1% → FY09 24.3%).

<표 10>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손해율	화재보험	40.9	39.6	44.2	42.3	45.0
	해상보험	52.0	52.1	57.7	65.3	54.3
	자동차보험	76.6	79.0	73.0	70.1	73.4
	보증보험	2.9	23.4	19.5	43.4	54.8
	특종보험	51.6	55.3	60.4	62.7	63.3
	해외원보험	52.4	44.7	34.6	45.1	43.3
	장기보험	86.4	83.9	80.7	80.1	79.8
	개인연금	125.9	125.4	121.7	116.2	115.7
전 체	전 체	77.9	78.6	75.7	75.8	77.8
사업비율		23.2	23.8	23.5	24.1	24.3
합산비율		101.1	102.3	99.2	99.9	102.1

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② 자산운용수익률

- FY2008 12월 말 자산운용률은 83.1%로 고정자산이나 보험미수금 등의 비운용자산의 증가로 FY2007에 비해 1.1%p 감소함.
- 주식시장의 침체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중 주식이나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의 보유비중이 낮아지고 안전자산인 현·예금의 보유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운용자산 수익률은 7.7%로 전년 7.5% 대비 0.2%p 증가함.

-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단기적으로는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 및 평가손익 증가로 운용자산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채투자수익률의 악화로 운용자산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은행이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0%로 낮추는 등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전망으로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표 13> 손해보험사 자산운용률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총자산		492,774	569,713	660,151	733,218	806,440
		13.4	15.6	15.9	11.1	10.0
자산운용률		85.1	84.3	84.2	83.0	84.1
수익률	총자산	5.9	5.5	6.1	6.1	5.2
	운용자산	7.0	6.8	7.5	7.6	6.5

주: 1) 자산운용률은 일반계정 실적임.

2) 자산운용수익률=2×투자수익÷(연초자산+당월말자산-투자수익)×12/m

3) 총자산은 특별계정 자산 및 미상각신계약비는 제외되었으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운용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 기존 확정금리 상품의 역마진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금리인하로 공시이율 하락 속도보다 신규 편입 채권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하여 금리 연동형 상품에서도 역마진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공시이율이 떨어지는 경우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장기손해보험의 성장률도 위축될 우려가 있음.

③ 수지차

- FY2008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손해율 및 사업비율 상승으로 인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FY2009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상승하여 악화 폭이 증대될 전망이다.
- FY2008 손해보험사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다소 악화될 것이며, FY2009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투자영업이익도 시중금리 하락과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로 FY2008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FY2009에는 시중금리 하락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투자영업이익이 상당 수준 악화될 전망

4.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2008년 동안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이 매 분기마다 평균 4.8%씩 하락하고, 손해보험은 평균 1.5%씩 하락
 -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에서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난 데에는 자본시장 변동에 취약한 생명보험의 특성에 기인
- 2008년 12월(3/4분기)의 지급여력 개선은 2008년말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재투자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산운용과 지급여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따라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없을 경우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 14> 보험시장 지급여력비율의 최근 4분기 추이

	2008				증가율 (1월-12월)
	3월	6월	9월	12월	
생명보험	237.7	208.5	184.4	204.1	-4.8%
손해보험*	247.5	244.6	229.8	236.7	-1.5%

주: 손해보험은 재보험회사 및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함.

□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지속은 보험회사의 자본력을 뒷받침하는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달성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금융위기의 영향은 먼저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손익(손익계산서)과 기타포괄손익(대차대조표)의 축소라는 투자영업 실적의 악화로 나타남.

- 물론, 2008.12월의 금리 인하에 따른 평가익이 늘어나면서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 추이를 고려할 때 투자영업이익의 감소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표 15> 투자영업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억원, %)

		2007		2008				증가율 (1-12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생명 보험	투자손익증가율*	20.3	14.4	12.2	-1.9	-5.9	-6.6	
	기타포괄**	7,922	6,861	8,087	5,200	2,443	4,415	-11.0
손해 보험	투자손익증가율*	51.1	42.3	19.2	8.6	-8.3	-10.7	
	기타포괄	1,175	898	1,114	656	168	324	-22.7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본계정의 기타포괄손익과 부채계정의 계약자지분조정 합산

□ 더욱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신계약 감소와 보유계약의 해약률 상승으로 보험영업의 수익 구조도 악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영업에서는 투자영업과 달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다르게 전개되어 왔음.

- 생명보험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경기 활동 축소에 따른 손해율 개선으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양상으로 전개

- 물론 2008.12월에는 손해보험에서도 영업이익률 하락

<표 16> 보험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09**	2008.12**
생명보험	27.3	24.5	25.5	23.0	17.4	4.1
손해보험*	12.6	12.3	13.5	16.0	17.4	13.5

주: * 준비금적립 이전 영업이익률 = (보험손익 + 준비금증가액)/수입보험료

** 분기 이익률은 연간 환산치 적용

□ 향후 자본시장 변동 가능성이 여전하여 투자영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험영업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 이므로 자본 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IV. 주요 대응과제

1. 거시경제 변화와 보험산업

- 향후 국내경제는 '저성장-저금리'의 침체국면이 당분간 지속하면서 보험산업에 대하여 수입보험료, 투자수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보험가입 여력도 줄어들어 신계약이 크게 줄고 해약률도 높아질 전망
- 경제의 저성장은 고용의 불안정, 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부문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게 함으로써 보험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그동안 변액보험 또는 변액연금 중심의 성장을 해온 생명보험회사에게는 타격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실손형 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장기손해보험 중심의 성장을 해온 손해보험회사에게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불황이 길어지거나 깊어질 경우 손해보험회사조차도 이번의 금융위기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임.
- 저금리는 예정이율을 낮추어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수익률을 낮춤으로써 금리리스크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금리연동형으로 판매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판매된 상품의 역마진에 더하여 역마진의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임.

2.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1) 사업구조개혁 및 자본 확충

- 보험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현재의 금융위기로 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및 경기침체는 과거 위기상황과 상이하다는 점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경영전략이 과연 현재 및 미래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냉정히 평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경영상의 가정과 목표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 위기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수익보다는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미래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구조조정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래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사업을 중단하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개시 및 확대의 타이밍을 찾아 준비
 - 본체 내에서 영위하는 것에 비해 아웃소싱 또는 분사가 효율성이 높을 경우 아웃소싱 또는 분사 추진
 - 이 경우 보험회사간 공동영위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아웃소싱 또는 분사 대상 사업의 대형화를 도모
- 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여 건전성을 개선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 요구됨.

- 은행의 경우 지배지주의 부채로 대주주를 통한 자본확충이 곤란한 반면,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존재하여 이들의 추가출자가 가능
- 따라서 자본확충편드를 활용하기보다는 대주주의 출자를 우선하고 출자가 곤란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M&A를 통한 합병 유도

2) 고객에 대한 신뢰 유지와 차별적 관리 전략

-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추가의 보험수요를 유도하는 방식의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대규모의 해약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해약을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 보험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비용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비효율적 모집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도모
 - 중산층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산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 서비스 제공
 -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모집조직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법규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함.
 - 보험리모델링 등의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해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가계의 소득여건 및 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소득계층별 특성 파악과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필요함.
 - 저소득 계층은 가계부채가 자산축적 보다는 소비증가와 관련되므

로 소득증대 및 보험상품 유지가 우선시 될 필요

- 저소득 계층의 금융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축 및 보험상품 유지에 제한이 되고 있는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에 대한 절감을 추진
- 중간소득 계층은 부동산자산 보유 증가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 채무부담의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계층으로 보험상품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완화될 필요
- 아울러 중간소득 계층의 경우 부채 증가와 금융자산 축적 미흡은 주로 주택가격 상승기대에 따른 부채를 활용한 주택구입 행태로 보이므로 무엇보다 주택 등 자산가격 안정이 중요
- 고소득 계층은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의 보험상품 유지 및 가입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불안으로 인해 이들 계층의 노후·건강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연금·건강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

3) 신성장 촉진을 위한 상품전략

① 퇴직연금상품 경쟁력 확보

-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지속적 급여인하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민영연금의 역할이 강조될 것임.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국의 퇴직연금시장규모('08.6월 말 자산기준으로 미국 1경5천조원, 일본 3천조원, 영국 2.9천조원)를 인지하고 시장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처

- 향후 퇴직연금 시장은 자영자의 퇴직연금 가입 허용 등으로 소규모 기업 및 개인이 가입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DC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
- DC형 퇴직연금 선호도 증대를 고려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퇴직연금 일시금의 연금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향후 퇴직연금 일시금지급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될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개인연금(annuity)을 적극 활용하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현물지급(양로시설입주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장기간병보험 및 서비스와 복합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② 고령화 대응상품 운용기반 마련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장기간병보험 사업영위를 위한 언더라이팅, 의료비심사역량, 의료기관 네트워크 등의 역량 확충이 필요함.
- 건강보험 또는 장기간병보험은 위험도가 높은 반면에 수익성은 낮은 분야이므로 인프라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
-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소비 증가와 전반적인 의료비용증가에 대비하여 상품구조를 위험율변동, 가입조건 변경, 계약기간 변경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
- 새로운 건강관련 위험요소의 발굴 등 언더라이팅과 요율분석 체계의 선진화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보험사기를 방지하여 손해를 관리

- 장기적으로 의료의 유인수요(Induced Demand)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③ 녹색성장 관련 상품개발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녹색성장, 저탄소 배출 등과 관련된 산업성장은 세계적 흐름이므로 이들 산업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됨.
- 산업시설에 탄소배출량 감축 장치를 설치하고 탄소배출 감축분만큼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수출판매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배출권 투자위험 관련 보험상품(Contingent cap forward) 도입 가능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보험제도의 개발이 미흡
-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대재해채권(Cat Bond) 또는 날씨파생상품 등의 선진형 금융기법의 도입이 필요
- 미국과 한국이 교토의정서에 동의할 경우 탄소배출과 관련한 대규모 파생상품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비 필요
 - 탄소배출과 직결된 탄소배출기업휴지보험 시장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환경보험제도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도 예상

4)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와 판매법제화의 선제적 대응

① 판매채널 포트폴리오 재구축

- 채널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따라 고객별, 상품별 목표시장을 분석하고 향후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채

널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예를 들면 홈쇼핑을 포함한 신채널의 경우 특히 남성, 미혼 및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 세분화를 통해 채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위기상황에서는 일부채널에 지나친 의존은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채널 포트폴리오의 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최근 방카슈랑스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방카채널에 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들은 경영실적 악화 및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널 포트폴리오의 집중도를 완화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보험판매법제 선진화 대응

- 금융겸업화 진전에 따라 금융상품의 제관분리 추세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방안이 금년 중에 마련될 전망이다(2009년 11월말 법안 제출 예정).
- 현행 판매법제는 여러 금융업종·금융업자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와 구매가 불가능하고, 금융상품별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수준도 서로 상이한 문제점이 대두
-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현 보험모집제도하에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이 도입될 경우 현행 모집조직의 동요, 보험 판매력의 감소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 노출이 우려됨.
- 국내 보험회사는 금융상품판매회사의 도입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별, 회사별, 상품별 판

매전략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속채널 위주의 대형사는 소속 설계사의 관리 및 통제 문제, 중소형 및 외국사의 경우 고비용 채널 활용에 따른 손익 감소 등의 문제 발생 예상
- 기업형 판매채널인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채널 구조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 판매자회사 설립, 판매회사에의 지분 투자, 채널의 독립채산제 강화, 소속 모집인의 고능력화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법제의 도입 검토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율적 도입방안을 작성·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선진화 법제 도입에 따른 회사별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새로운 판매채널 등장에 따른 보험판매채널 변화, 보험회사의 판매회사 종속 가능성, 보험사의 손익 변화, 보험설계사의 실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

5) 수익성 확보를 위한 언더라이팅 기능강화

① 언더라이팅 시스템 선진화

-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위험요소들의 상대위험도를 적절히 평가하여 요율분석 및 마케팅 전략 이외에도 역선택과 보험사기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단변량 위주의 언더라이팅과 요율분석 시스템은 위험요소들간의 상호작용과 통계적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다변량중심의 분석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보험사기는 경기지수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시에 발생빈도가 높고 보험계약이 강력범죄에 적용될 수 있어 방지방안 마련해야 함.

- 보험사고 직전에 보험에 가입한 역선택 문제, 중복 및 다중 보험 계약·보험금 지급사실 인지 부족, 보험사기 정보시스템 활용 미흡, 전문적인 보험사기 법률 미비로 인한 위법행위 입증 곤란, 보험사기 관련 처벌 근거 등의 문제점 개선 필요

②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관리

□ 자동차보험은 경제침체에 따른 신차판매 위축, 온라인 판매채널의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등으로 원수보험료의 성장이 어려울 수 있어 적극적인 손해율 통제가 중요시 됨.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통제력 제고를 위해 요율분석체계를 일반화 선형모형(GLM)으로 전환할 필요
- 물적 사고시 수리비용과 인적 사고시 의료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관리를 효율화
- 주요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Pay as You Drive)방식도 사고발생률 감소 유도를 통해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더욱이 녹색성장 및 저탄소배출과 직결되는 상품구조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
 - 미국에서는 텍사스,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및 오리건, 미시간 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AIOI사가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율이 12~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6) 저금리에 대비한 자산운용전략

□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저하로 금리역마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산운용수익

를 개선 노력이 요구됨.

- 현재 보험회사는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 금지규제로 CDS 거래가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이를 허용하여 초과수익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 우량채권에 대한 CDS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대상이며 평균 이상의 수익률 확보가 가능

- 보험회사의 해외채권 투자는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할 필요

-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이라도 선별적 투자를 통해 고수익 확보가 가능하며, RBC 도입 시 무분별한 투자 억제 가능

- 부채의 긴 듀레이션을 일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대상 발굴 등 부채의 부담금리 구조에 맞춘 자산구성이 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는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적극활용하였으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형손실이 발생

- 장기 채권의 대안으로서 탄소금융상품, 헤지펀드, 원자재 등 장기 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체투자를 검토

7) 통합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회사의 손익구조 및 재무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자본력 강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고 하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자본시장 변동 가능성이 여전하고 보험영업에서 수익성 개선 가

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가 및 금리 변화 등을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로 적정수준의 자본 보유가 필요함.

□ 특히 현재와 같은 저금리현상이 지속될 경우 투자부문의 실적 부진이 자산운용이익률 저하로 나타나 이차역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담금리를 고려한 적절한 예정이율의 설정이 보다 요구됨.

○ 즉 금리연동형 상품 및 변액보험에 대한 최저보증이율을 부담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예정이율리스크증대에 적극 대비

○ 특히 변액보험은 적정수준의 가격설정 등이 이루어지고 최저보증에 따른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한 헤징전략도 필요

□ 또한 주식과 금리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 및 금리리스크 등은 점차 대출자산 부실화, 보험계약 해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투자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함.

○ 미국 AIG그룹과 일본 야마토생명 파산사례는 투자리스크관리 부재와 공격적 자산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 따라서 시장, 신용, 금리 등과 같은 다양한 보험회사 내재 리스크를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통합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즉 시나리오별 금리의 예측능력 강화, 예정이율의 안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산운용관련 리스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

- 이를 위해 보험회사를 둘러싼 리스크 환경변화요인과 리스크 노출정도를 고려한 리스크관리조직의 확충 및 개편과 더불어 전사적 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의 전문성 확보,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 강화, 리스크관리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보다 리스크관리조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리스크에 기반으로 하는 상품전략, 투자전략 수립으로 안정적 수익확보 및 기업가치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전사적 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또한 보험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및 새로운 재무건전성 체계로의 이행 등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 및 계리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리스크중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재인식이 요구됨.